



■ 발행인 : 박근서 지회장(011-617-3798) ■ 발행처 : 교육선전부 ■ 발행일 : 2010년 6월 18일(금) ■ 제 100호

회사의 용역강패, 노조 근간을 없애려해

강력한 법적대응과 함께 총력투쟁 감행키로...



▲ 17일 6시경 60여명의 용역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조합이 설치한 천막과 수십개의 현수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난도질한 후 철거했다.



▲ 이들 용역들은 조합의 카메라와 휴대폰 촬영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탈취하여 무참히 파손했다.



▲ 이로 인해 수십명의 조합원이, 폭압적인 용역들이 휘두른 폭력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 나주 몇몇 사무실 직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웃으며 격려했으나 경찰 출동 이후,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주시했다.

조합원 두들겨 패놓고 교섭하자고?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교섭단들 !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

지난 17일, 나주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06시경에 60여명의 용역 깡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합의 현수막과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난도질했고, 그 커터칼에 조합원이 찢리고 이를 촬영하는 조합원들의 휴대폰과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또한 이를 저지하는 조합원들을 주먹으로 얼굴

을 가격하고 발로 짓밟는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로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일들이 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5월 10일 사장을 만난 이후,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주&화성 공장은 잔업/특근 마다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게 다가왔습니다.

Frank 사장에 대한 신

뢰감은 배신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인 저와 만나 서로 Win Win 하자던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고서, 이렇게 노동탄압을 자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기에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약속을 못지

킨 회사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관계된 책임자의 처벌이 없는 한, 앞으로 나주&화성 전 공장 파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리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가 당한만큼 기필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 박근서 드림

나주는 지회장 막고, 화성은 지부장을 막다니

조합 기만행위에 대한 사과조차 없어... 선택을 현명하게 하길 바란다!

지난 17일 69차 화성교섭을 앞두고, 나주공장의 60여명의 용역들 난입과 관련하여 회사 정문을 출입하는 지회장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화성에서도 교섭과 관련해 금속노조 지부장이 비록 출입은 했으나 초반에 출입을 저지당하며 실랑이를 벌

이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

회사의 생각있는 사람들은 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출입을 왜 막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일은 노동조합이 있는 타사업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롱거리다.

우리 조합은 교섭을 진행

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교섭 시작시간을 앞당기어 임금에 대한 협상과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을 하루에 동시 진행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17일 나주에서의 조합 기만행위와 폭력사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을

하루는 임금협약, 또 다른 하루는 단체협약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어떻게든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는 형국이다.

또한, 매번 거듭되는 말로는 성실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성실교섭커녕 교섭자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